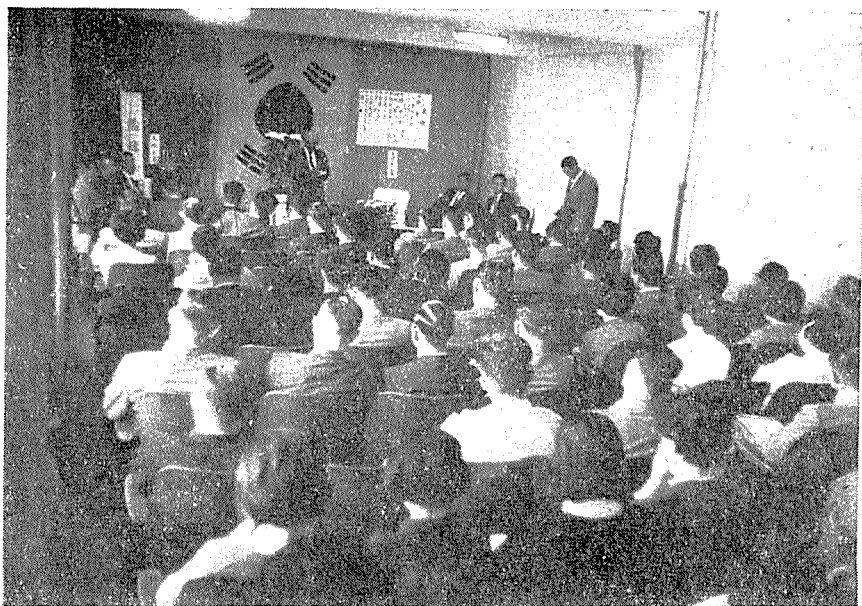


## 第三回 全國圖書館大會



(特殊圖書館大會에서 李孝祥國會議長의 記念講演光景)

## 大會日程表

1964年

- |            |                      |        |
|------------|----------------------|--------|
| 9月 21日~22日 | 大學圖書館大會 於 高麗大學校圖書館   | 164名參席 |
| 9月 23日~24日 | 特殊圖書館大會 於 中央公報館      | 118名參席 |
| 9月 25日~26日 | 學校圖書館大會 於 大邱商業高等學校講堂 | 204名參席 |
| 9月 28日~29日 | 公共圖書館大會 於 大田市立圖書館    | 45名參席  |

# 開 會 辭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閔 泳 珪

第一回와 第二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 우리가 당면했던 至上 命題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도서관법」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大會에서 全國 도서관인의 이름으로 한결 같은 우리의 總意를 당국에 提訴했고 드디어 작년 10月28日의 國會에서 圖書館法の 制定을 보게 된 전후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第三回의 大會를 맞이하여 비로소 이 報告를 드리면서 感慨가 한결 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始終 이 일에 관련하여 애써주시던 여러 同志들께, 특히 이 자리에 參席치 못한 協會의 先任者 여러분께 우리의 뜨거운 感謝를 잊어서는 아니될 줄 압니다.

도서관법이 制定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能事가 끝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은 이제부터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坊坊谷谷 모든 部層의 國民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는 施設을 마련해 주고, 讀書를 통해서 힘과 智慧를 기르는 國民이 되게 하자면, 이러한 宿題들이 모두 우리 도서관인들에게 짐이었던 悲願으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統計된 數字에 依하면 全國의 學校 施設에서만 새로운 圖書室이 五千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五千개의 圖書室을 꾸미고 움직여주고 하자면 당장 또 五千人의 훈련 받은 圖書館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코 있

는 훈련 받은 도서관인——곧 司書教師는 四百의 數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의 當面한 至上 命題를 높은 山陵으로 비유하고 그 陵線만 넘어서면 그만인줄 알았더니, 그 山 넘어로 더욱 아득한 山嶽가 가로 놓여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더라, 이 말은 일찌기 革命途上에 있던 孫逸仙先生의 述懷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 참으로 우리의 앞길이야말로 갈수록 泰山인 느낌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1년이던 한번씩 만나는 同志들간의 이 會合은 그 동안의 어려웠던 事情을 이야기하고 서로서로의 同情과 激動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周圍를 향해서 가장 効果의인 說得力을 發揮할 수 있는 絶好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해 동안 우리가 걸어 온 길을 도리켜 反省해 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管掌코 있는 莫重한 藏書를 좀더 效果的으로 널리 奉仕할 수 있는 길을 積極摸索함으로써 모처럼 圖書館인에게 지니워진 使命을 다 할 수 있었던가, 또는 그렇지 못했던가. 大學圖書館은 大學圖書館끼리, 特殊에서는 또 特殊끼리 서로서로의 協助를 더욱 緊密히 함으로써 各自의 特殊를 더욱 살리고 그리고 活用の 面에 있어서 十倍의 效率을 가져 오게 할 수 있는 Union Catalogue 制의 實現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眞摯하게 論議될 좋은 時期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第三回 全國圖書館大會가 더욱 劃期的인 記錄을 남기는 大會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 祝 辭

文教部長官

尹 天 柱

오늘 第三回 全國圖書館大會에 參席하여 여러분들에게 祝辭를 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榮光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圖書館하면 옛날에는 冊을 모아 두는 곳, 또 필요한 책을 빌려 주는 곳이라고만 認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國民을 착취하기 爲하여 國民을 無智로 放置해 두었던 封建主義時代를 벗어나 民主主義가 發達하여 國民의 知識이 國家發展과 直結되는 오늘날의 實情에서는 圖書館이 單只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만으로서 그 責任을 다할수 없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積極的으로 國民에게 接近하여 책을 읽도록 일깨워주고 指導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卽 國家가 圖書館에 바라는 期待이고 또 圖書館의 任務입니다.

實際로 先進 各國의 圖書館은 國民들이 책을 읽게끔 指導하고 또 必要한 知識의 習得을 願하는 사람에게는 그 方法과 資料를 蒐集 提供하며 助言하는등, 圖書館 스스로가 積極的으로 國民들에게 接近하므로써 그 나라의 文化向上에 커다란 功獻을 하고 있습니다. 卽 죽은 知識의 寶庫에서 살아 있는 知識의 轉達者로 登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解放以後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날로 세로워져 지난해 63年 10月 28日에는 여러분들이 待望하던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되었읍니다만 圖書館運營面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前近代의 活動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極少數를 除外한 大部分의 圖書館은 제구실을

다못하고 歲月을 보내고 있으며 또 일면적으로 사람들은 圖書館이 自己를 도와주는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圖書館은 一般國民生活에서 隔離되어 있습니다. 勿論 여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直接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진 隘路를 克服하면서 쌓아 올린 훌륭한 功績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各館種別로 增加되는 圖書館의 普及과 새로운 圖書館學의 導入, 研究, 有能한 圖書館人의 養成등은 여러분의 훌륭한 業績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圖書館은 좀더 一般國民과 親密해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國民의 讀書意慾을 鼓吹시킬 뿐만 아니라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하며 圖書館이 自己를 도와 주는 곳임을 알리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뭇게 圖書館을 利用할수 있도록 善導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大學 및 特殊圖書館은 質的面에서 뿐만 아니라 圖書館實務者들의 能力面으로 보아도 다른 圖書館의 垂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進歩가 달려 있다고 確信합니다.

二日동안의 이 大會에서 여러분들이 平素 研究하신 좋은 研究結果나 實務者로서 겪는 畧은 隘路등을 充分히 討議하시어 우리나라 모든 圖書館이 發展될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當局의 한사람으로서 圖書館을 爲하여 充分한 뒷바침을 해드리지 못한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몇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를 祝辭에 代身합니다. 感謝합니다. (代讀)